

< 산하 공공기관 업무보고 결과 브리핑 >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훈입니다.

오늘 고용노동부 12개 산하 공공기관이
국민께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단순히 올해 할 일을 공유하는 자리가 아니라,
지난 12월 국민께 보고드린 이재명 정부의 노동철학과
정책이 현장의 모세혈관까지 제대로 흐르고 있는지를
고용노동부와 12개 산하 공공기관이 머리를 맞대고
치열하게 점검하는 자리였습니다.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정치는
존재 이유가 없다”는 대통령님의 평소 철학을 받들어,
정책이 실현되는 최일선에서 국민과 직접 마주하는
공공기관의 역할을 강조하고,
국민의 삶을 지키고 개선하는 최후의 보루로서
비장한 각오를 다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업무보고를 받은 뒤,

모든 산하 공공기관에게 관행적인 행정을 타파하고
주권자인 국민께서 ‘내 삶이 바뀌었다’라고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달라고 강력히 주문했습니다.

오늘 산하 공공기관들은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라는 정책 비전하에,
‘노동있는 산업 대전환’과 ‘노동시장 격차 해소’로 나누어
구체적인 실현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먼저 ‘노동있는 산업 대전환’입니다.

AI 등 기술 대전환과 인구구조 변화라는 파도 앞에서
노동이 소외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술변화에 따른 과실을 일부가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와 산하 공공기관들은

‘공정한 상생(相生)’과 ‘두터운 보호’의 정신으로
현장을 챙기겠습니다.

먼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직업훈련 주치의’가 직접
중소기업 600개소를 찾아가 맞춤형 AI 훈련을 지원하고,
대기업의 훈련 인프라를 중소기업 노동자에게 지원하는
AI 특화 공동훈련센터 20개소 신설 계획을 보고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과 비용이 부족한 중소기업 노동자들이
AI 기술 전환에서 소외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공단이 제공하는 훈련이 기업 상황과 여건에
맞게 지원되도록 당부하고,

올해 신설되는 AI 특화 공동훈련센터 20개소는
훈련 인프라가 부족한 지방을 중심으로 설치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한국폴리텍대학은 AI 기초역량부터 직종별 기술과 AI를
결합하는 AX과정까지의 수준별 AI 교육과
설비가 있는 물리적 환경에서 AI를 응용할 수 있는
‘피지컬 AI 실습실’ 구축방안을 보고했습니다.

이에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준비 중 청년’들을 중심으로
직종별 기술과 AI를 결합한 훈련을 제공하여,
신기술 역량을 키워 취업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올해 새로 구축하는 ‘피지컬 AI 실습실’ 4개소는
폴리텍 자체 활용만이 아니라 지역 중소기업에 적극 개방
해서 지역의 AI 도입과 노동자 AI 역량 제고를 위해
활용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한국기술교육대학교는
1만 3천명의 AI 교·강사를 양성하는 방안과
온라인 AI 교육 콘텐츠 확대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산업현장의 AI 교육훈련 수요는 계속 높아지고 있지만,
현장의 전문 교·강사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할 수 있도록,

신규 교·강사 양성 외에도 기존 교·강사의 AI 역량 향상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은 AI를 활용해 생애주기별 취업과 경력설계를 지원하는 잡케어 플러스 서비스의 고도화와 구인기업에 인재 추천 등 원스톱 채용지원을 하는 펌케어 구현방안을 보고했습니다.

올해 기업에 본격 서비스되는 AI 원스톱 채용지원이 차질 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당부하는 한편, 재난 상황에서도 실업급여와 취업지원 서비스가 국민 불편 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고용 24’ 전산망 위기대응 체제도 철저히 점검했습니다.

특히, 여러 공공기관의 AI 관련 역할이 중복되지 않고 효과적으로 추진되도록 기관간 칸막이를 없앨 것을 당부하고, 고용노동부와 공공기관들이 한방향으로 원팀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서로의 역할을 조율하기로 했습니다.

저출생 · 고령화에 따른 노동인구 감소 위기에도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외국인 노동자에게 한국어와 노동인권 교육 등의 포용적 체류지원 방안을 보고한 한국산업인력공단에는 언어 장벽이 생존 장벽이 되지 않도록 입국 후 한국어 교육과 산업안전 교육을 대폭 강화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자격 요건 개편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을 주문하고,

국가자격 시험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 훼손이 재발하지 않도록
책임감과 긴장감을 갖고 철저히 개선토록 지시했습니다.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 대응을 위해,
중장년에 대한 훈련과 재취업 지원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한국폴리텍대학에 중장년 선호 자격이나 기업의
수요 등 현장의 수요를 면밀하게 파악하고,
각 지역 캠퍼스별로 중장년 선호 교육훈련을 확대하는 등
지역과 연계하여 중장년이 인생 2모작을 설계하기 위해
믿고 다닐 수 있는 교육기관으로 거듭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아울러, 경력보유여성이 노동시장에 재진입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경력보유여성 친화직종을 중심으로 산업현장의 실무 역량을
쌓을 수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는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 추진에 따라
기업의 고용역량을 분석하고 적합직무개발을 지원하는
장애인 고용컨설팅 확대와
올해 신설되는 장애인 고용개선장려금 준비 상황을
보고받았습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대한민국의 유일한 장애인 취업지원기관으로서
‘장애인에게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라는 사명감을
모든 공단 직원이 가질 것을 당부하고,
장애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취업서비스를 확대할 것과
기업이 필요한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설계하는
기업 주도의 맞춤형 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게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사회적기업 예산이 상당 부분 복원된 만큼
사회적기업에 대한 창업과 판로 지원 준비 상황을
집중적으로 보고받았습니다.

올해가 위축되었던 사회적기업 생태계 복원의 원년이자
현장 신뢰 회복을 위한 전환점임을 강조하고,
지역 내 다양한 민간기관과 긴밀한 협력체제를
만들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국잡월드에는 AI와 창의 등을 바탕으로
미래 진로·직업콘텐츠 고도화 방안을 보고받고,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의 니즈를 고려한
다양한 직업 체험프로그램을 만들 것을 당부했습니다.

다음은 '노동시장 격차 해소'입니다.

노동시장의 위험 격차, 임금 격차를 해소하는 것은
국가가 해야 할 당연한 책무입니다.
그리고 격차 해소를 위한 핵심 기관은
고용노동부와 산하 공공기관임을 강력하게 강조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는
국정과제이자 국민께 약속드린 업무상 질병의
산재 처리기간 단축 이행방안과
임금체불 노동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도산대지급금 지급범위 확대 준비 현황 등을 보고받았습니다.

"산재보험은 국가가 베푸는 시혜가 아니라,
노동자의 마땅한 권리인 만큼,
산재 인정이 소송보다 힘들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고
산재 미인정에 대해서는 내용과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또한, 올해 5월부터 변제금 회수에 적용되는
국세채납처분절차가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면밀한 준비도 당부했습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는 위험격차 해소를 위한
소규모 사업장 지원 계획을 집중적으로 보고받았습니다.

공단이 보고한 안전한 일터 지킴이 신설에 대해서는
선발뿐만 아니라 역량 강화 방안도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소규모 사업장이 더 위험한 일터가 되지 않도록
민간협회 등과 협력을 통해 말단 현장으로 향하는
정책 길목을 확보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산재예방 재정지원이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재점검하고, 컨설팅이나 교육 등
다른 지원 사업과 효과적으로 연계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노사발전재단은

노사 간 신뢰 구축 및 상생을 위한
현장 코칭과 상생파트너십 지원,
주 4.5일제 특화 컨설팅과 장려금 준비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지난달 노사정이 합의한 ‘실노동시간 단축’의 현장 적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여건이 어려운 중소기업도 실노동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재정지원과 컨설팅 등 지원을 집중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임금직접지급제 확산을 위한
민간 대금지급시스템과 전자카드 시스템 연계,
적정임금제 도입 시범사업 계획 등을 보고했습니다.

국정과제인 건설업 적정임금제 도입을 위해 필요한
전자카드제 등 기존 제도의 활성화를 당부하는 한편,
건설노동자의 땀 어린 퇴직공제부금은
퇴직 후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야함을 강조하고,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운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건설현장이 청년 선호 일자리로 거듭날 수 있도록
현장의 건설기능인, 노동조합 등 이해관계자와
한국폴리텍대학 등 다양한 훈련 인프라와 협조하여
건설 기능인력 양성을 위한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고용노동교육원에는
전 생애에 걸친 노동교육 확대 방안과
근로감독관에 대한 역량 강화 계획을 보고받았습니다.

앞으로 증원되는 근로감독관들이
산업재해 예방과 임금체불 근절 등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내실있는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하고,
감독과 수사 역량을 갖춘 전문성 있는 강사 확보와
현장 중심 교육 등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습니다.

끝으로 업무보고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모든 공공기관에 공통적으로
다음 세 가지를 각별히 유념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난해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같이
대국민서비스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기관의 시스템 운영과 점검에 만전을 기하고,

공공기관이 모범적 사용자로서
공무직 등 노동자 처우개선에 힘쓸 것을 주문했습니다.
울산 등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은
지역사회에 정주하며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업무보고는 일회성 행사나 보고서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국민께 약속드린 과제를 충실히 이행하여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속도’를 내겠습니다.

변화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국민께서 조속히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산업재해 예방, 임금체불 감축 등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다음은 ‘노동과 함께하는 진짜 성장’을 실현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대도약과 성장에 노동이 함께하도록
고용노동부와 현장에서 뛰는 산하 공공기관이
새로 도입되는 제도의 현장 안착을 지원하고
우수한 사회적 대화 모델을 발굴하고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에 대한 ‘공개와 소통’입니다.
주원자인 국민을 두려워하고 진정성있게 다가가겠습니다.
고용노동부와 산하 공공기관이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 한 사람의 목소리도 단순한 민원으로 두지 않고
항상 귀 기울여 듣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부분을 고쳐나가며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와 오늘 업무보고를 한 12개 산하 공공기관,
모두가 ‘원팀’이 되겠습니다.
국민께 약속드린 정책목표가 현장까지 닿아
국민의 삶을 실제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